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안과용 수술기구

글口신좌섭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실 검직교수)

사진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과용 수술기구 세트로서 상아 손잡이에 철제 날을 들어얹힌 것들이다. 목재함에 담겨진 25조의 기구는 아주 정교하며, 용도에 따라 형형색색의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모두 수제품으로 상아 손잡이의 모양이나 철제 날의 모양도 일정하지 않으며, 20세기 초에 사용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과는 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분과의 하나이다. 기원전 2250년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 수술에 성공하면 시술자에게 10체켈(은화)을 주고 실패하면 시술자의 양손을 절단한다'는 규정이 등장한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수정체 전위술(couching)이 처음 등장한 것은 로마시대이며, 바흐는 백내장 수술 후에 죽었고 헨델은 안과수술 후에 실명을 하였다.

실제로 이 수술기구 세트는 수정체 전위, 각막 절개, 홍채 절개, 눈 속의 기생충 제거 등에 사용되던 기구로서 반달모양, 마름모꼴 등 다양한 날을 가진 칼, 눈꺼풀이나 각막을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